

## 주님의 몸을 준비해나가는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

### I. 시대, 노아의 때

- A.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인자가 임하는 때(예수님의 재림의 때)를 노아의 때로 비유하셨으며 (마 24:37), 제자들에게 <sup>1)</sup> 깨어 있으며 <sup>2)</sup>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. 이 말씀은 예수님 초림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, 임자의 임함이 가까운 것을 보는 성도들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말씀이다.

<sup>37</sup>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<sup>38</sup>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<sup>39</sup>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<sup>40</sup>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(흫정역: 붙잡혀 가고)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(흫정역: 남겨질 것이요) <sup>41</sup>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<sup>42</sup>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<sup>43</sup>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<sup>44</sup>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<sup>45</sup>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<sup>46</sup>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니 <sup>47</sup>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(마 24:37-47)

- B. [마 24:37-39] **노아의 때:** 노아의 때는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나머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눈이 가리워진 때를 말한다 (창 6:5).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즐거움만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은,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심판 조차도 잊은 세대를 묘사하고 있다 (사 22:13).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죄악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, 빠른 속도로 죄와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.

<sup>5</sup>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(창 6:5)

<sup>13</sup>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(사 22:13)

- C.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움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서야 한다 (마 5:14). 어두움을 한탄하지만 같이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 (눅 21:34), 깨어 있음으로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한다.

- D. [마 24:40-41] **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:** 이는 성도의 휴거를 설명하는 데

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절이지만, 실은 성도의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보기 어렵다.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언급하신 것은 사람들이 만연한 죄로 인해 심판이 진행되는 중간의에도, 다 끝나기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며, 롯의 때도 역시 함께 사용하여 말씀하셨다 (눅 17:26-30). 이 문맥은 명확히 심판이 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초점이 아닌, 심판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초점이다.

E. 이 구절을 환란전 휴거 입장에서 “한 사람은 데려가고”를 휴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, “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”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“휴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자들은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”는 환란전 휴거설의 가정까지 추가해야 한다. 이 구절을 연역적인 방법이 아닌 좀 더 평이한 방법으로 해석하면 “한 사람은 심판에 휩쓸려가고,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될 것이다”가 될 것이다.

F. **[마 24:42-44]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:**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그분 앞에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신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주님의 임하시는 때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. 예수님께서서는 이 주제를 마 25장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서 설명하신다. 44절을 의역하면, “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,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”가 될 수 있다.

G. 그분이 임하시는 시즌 vs. 정확한 날짜: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,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이 임하시는 시즌은 알 수 있지만, 다만 그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점이다.

1. **그분이 임하시는 시즌 = 알 수 있음, 알아야 함:** 예수님께서서는 마 24:1-33절까지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“인자가 문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”(33절)고 말씀하셨다.
2. **정확한 날짜 = 알 수 없음:**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마 24:36절에서 그 정확한 날과 때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.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우주를 관측하며 날짜를 예측하는 점성술이 유행했다.

H. 마 24:42-44절을 요약하면, “우리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과 때를 알 수는 없지만, 깨어 있음으로 그분이 임하시는 시즌을 깨달음으로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되서는 안된다”는 부분이다.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한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다양한 구절을 참조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.

**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(살전 5:4-6)**

I. **[마 24:45-47]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:** 예수님께서서는 마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시각에 일찍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(열 처녀 비유),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더디게 올 것이라 믿던 사람들에게 대해 비유로 설명하신다 (악하고 게으른 종).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“충성된 종”은 악하게 게으른 종 비유와 연관이 있으며, “지혜 있는 종”은 열 처녀 비유와 연관이 있다.

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10년 후에 오실 지, 50년 후에 오실 지 알지 못하지만, 그분의 임하심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히 알고 있다.

- J. **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:** 우리는 이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궁금해하기보다,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로서 나가야 한다. 이를 위해 우리는 2가지 일을 해 나가야 한다

<sup>35</sup> **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(요 6:35)**

1. **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을 준비해감 (지혜롭고):**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, 예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. 우리는 "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"고 말하는 아무것도 나눠줄 것 없는 자가 되기보다, 슬기롭게 기름을 간직하고, 채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- 첫째 계명
2. **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 (충성된 자):**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, 이 생명의 떡을 다른 이들과 활발히 나누고, 가르쳐야 한다. 이를 위해 우리는 제자들을 양육해 나가며,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- 둘째 계명